

## 김 문 영

### 결 론

안동시내의 거주하는 기혼남녀 220명을 대상으로 1981년 2월 1일에서 동년 2월 28일 까지 가족계획에 대한 견해 및 실태를 조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1. 가족계획 용어에 대해 비교적 올바른 지식인 자녀를 계획적으로 산출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. (75.9%)

2. 남녀 모두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(81.8%), 이상적인 교육방법으로 가족계획요원과의 상담을 통해서가 26.7%로 수위이며, 가장 적절란 시기는 중·고교 시절이라고 응답했다(42.7%).

3. 남녀의 89.1% 여자의 90%에서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.

4. 가족계획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 대상자는 의사 45.9%, 가족계획요원 17.7%, 기혼자 15.5% 순이었다. ( $p < 0.05$ ).

5.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피임방법으로 경구피임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. (79.5%) 알게 된 경로는 T. V 나 신문광고를 통해서가 35%로 수위를 차지하였다.

6. 피임 실시율은 전체적으로 56.8%이며 20대 40.5%, 30대에서 60.3%, 40대 63.6%, 50대 50%이며 학력별로는 고교졸업자가 63.1%로 가장 높았다.

7. 실시하고 있는 피임방법으로는 경구피임약 22.4%, 콘돔 19.2%, 정관수술 16% 순이었다.

8. 남아선호도는 남자의 68.2%, 여자의 65.5%로 나타났다.

## 예방접종의 지식 태도 및 실천에 관한 연구

중앙의학 제40권 제5호, pp. 329~336, 1981.

### 김 향 자

1980년 9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1개월간 대구시 동구에 생활근거를 둔 24개월 미만의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 336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상태와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, 태도 및 실천상태 부작용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조사연구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.

1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중 대상 어머니의 연령은 82%가 34세 미만이며 교육정도는 61.2%가 9년 이하이다. 종교는 불교가 38%로 가장 많고 기독교(13%), 천주교(14%)는 거의 동등하다. 원하는 자녀수는 61%가 아들 1명, 딸 1명을 원하고 있고 57

%가 건강상담을 받고 있으며 건강상담 장소로는 73%가 개인병원으로 대체로 개인병원 이용율이 높다.

2. 어린이의 건강상태는 최대 평점이 3.74이며 최대평점에 대한 비율은 74.74%이다. 어머니들은 애기를 위하여 좋은 습관을 위한 일상생활 지도에서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.

3.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최대 평점은 3.5이며 최저 평점에 대한 비율은 76.6%이다.

대상자의 86.8%가 정기적으로 주사를 마친다고 하였으며 78.6%가 정기적 예방접종 계획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.

4. 예방접종 실천에 대한 최대 평점은 3.23이며 최대 평점에 대한 비율은 63.6%이다. 대상자의 73.0%가 주사를 마치기 전에 의사나 보건요원에게 상의하며 주사를 마친 후 무슨 예방주사인지 확인하는 경우는 34%에 불과하다.

부작용에 대한 태도에서 최대 평점은 3.17%이며 최대 평점에 대한 비율은 53.3%이다. 대상자의 62%가 부작용은 사람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나며 부작용의 원인은 69.6%가 주사약의 변질, 67.6%가 불완전한 소독과 부정확한 주사 방법이며, 64.8%가 애기의 영양상태를 원인으로 들었으며, 77.8%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으나 예방 주사는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.

## 일부 농촌 간호계획을 위한 모자건강 실태 조사

순천간전논문집, Vol. 7, pp. 247~273, 1981.

### 소 향 속

본 조사는 지역사회 보건간호실습을 위해서 모자보건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행된 것이다. 전남 순천시 인안동 대대 신석부락에 거주하는 230가구의 가구주 부인을 대상으로 1981년 5월 1일~6월 20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

1. 가구주 부인의 평균연령은 41.8세이며 국졸이하의 학력이 85.7%를 차지하고 평균 결혼연령은 20.2세로 조혼의 경향이었고 35세 이후에 단산한 부인이 40.5%로서 고령임부로 인한 모자건강의 위험성을 크게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2. 평균 임신횟수 5.7회와 평균 출산횟수 4.5회와 평균 현존자녀수 4.2명이 차이를 보여줌으로서 산전후관리, 영유아보건관리의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.

3. 임신소모는 출생아 1,000명당 205명이며 인공유산에 의한 임신소모율의 점유율은 72.7로서 올바른 가족계획 지식보급으로 모자보건의 손실을 막을때 임신소모율도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다.

4. 23.5%에 해당하는 가구주부인이 어린이를 잃은 경험이 있었고 사인은 예방 가